

# '한수원 2021레지던시페스타' 안창홍, 목없는 12좌불 디지털펜화

등록 2021.04.07 16:33:49



[서울=뉴시스] '한수원아트페스티벌-2021레지던시페스타'에 참여한 안창홍 화백.

안창홍 화백은 이번 전시에 목 없는 12좌불을 디지털펜화 기법으로 표현해 경주의 애환과 아픔의 역사를 승화시켰다.

경주예술의전당에서 5일 개막한 '2021레지던시페스타'는 2개국 12명의 작가가 경주에 체류하며 작업한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로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한데 어우러져 전시 주제인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전시는 5월16일까지. 관람은 무료. 2021.4.07.phot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